

## 문학비평적 성서해석과 번역 -애가를 중심으로-

이영미\*

### 1. 들어가는 말

성서 번역학은 1980년대까지 원천어 본문의 문법 형식을 수용언어 번역문에 서도 그대로 반영시키는 형식 동등성(formal equivalence) 번역과 원문이 지니는 문법형식보다는 그 의미를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번역이라는 언어적 등가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문장과 낱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나 장르, 문학이론을 무시하는 경향을 띠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70년대 제임스 홉즈는 이미 “번역이 문장에 얽매인 언어학에서 시선을 돌려 본문의 성격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펴내지 않고서는 적절한 번역이론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sup>2)</sup> 알루 모졸라는 최근의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일반적인 경향도 기능주의, 문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교회와 독자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며,<sup>3)</sup> 티모시 윌트는 문학적 기능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이라는 번역기법을 주장한다.<sup>4)</sup> 왕대일 역시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사이에 내용상의 대응을 추구하는 번역에 머무르지 않고 원천 언어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술적 기교가 수용언어로 된 번역문에서도 ‘기능적으로’ 살아나는 번역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성서해석과 성서 번역에서 원문이 지니고 있는 감정적, 정서적, 교훈적, 예술적, 신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용언어의 독자들도 인지할

\* 한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E. Nida and Charles Tab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참조.

2) James Holmes,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pproaches to Translation Studies 7; Editions Rodopi, 1988); 알루 모졸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14 (2004. 4.), 143에서 재인용.

3) 알루 모졸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번역”, 145. 알루 모졸라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책임자(케냐 나이로비)이다.

4) 티모시 윌트,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그 몇 경우”, 『성경원문연구』 15 (2004. 11.), 117-153. 티모시 윌트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이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5)</sup>

번역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등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원천어 본문과 수용언어 본문 사이의 총체적 가치 동등성을 다루는 본문간 등가(inter-textual equivalence)를 강조하게 되었다.<sup>6)</sup> 이때 본문간 등가란 단순한 문법을 포함한 어원적인 차원뿐 아니라 본문의 어휘, 형식, 구조, 문학적 관습 등의 범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번역이란 언어의 실존 단위인 본문의 어휘소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언어를 둘러싼 제반 역사적, 문화적 정황과 번역자를 주체의 인지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문화 층위의 매개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다수의 번역 등가를 다루는 복합적인 과정이다.<sup>7)</sup> 이러한 다수의 번역 등가는 원문과 번역문의 성격, 대상 독자, 두 문화 간의 차이, 그리고 각 문화가 지니는 도덕적, 지적, 정서적 특징 등의 모든 상황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sup>8)</sup> 최근 성서 번역이 한 가지 관점과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본문의 언어학적 측면과 함께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이념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통합 이론과 방법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게 된 배경에는 성서해석학의 영향이 크다.<sup>9)</sup>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성서의 최종 본문의 문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문학비평이 원천어의 의미를 살린 번역에 어떤 공헌을 하는가를 예레미야애가를 중심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번역본은 한글 성서를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필요에 따라 영어 번역본을 인용할 것이다.

## 2. 문학비평과 성서해석

19세기 벨하우젠(J. Wellhausen)을 필두로 한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이 유럽의 인문학자와 독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성서연구의 지평에 커다란 변

5)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4.), 54.

6) Roger T. Bell,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Applied Linguistics and Language Study (London; New York: Longman, 1991), 161-197.

7) 박여성, “번역학의 인식론적, 언어학적 정초”, 『번역학 연구』 1 (창간호, 2000), 63.

8) Eugene A. Nida & Charles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Bible Translating* (Leiden: Brill Academic Publishing, 1982), 14.

9) 최근 미국성서학회(SBL)의 번역 관련 분과의 발표 내용들은 성서 번역의 다층적인 문화, 이념적 접근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SBL의 이념, 문화, 그리고 번역(Ideology, Culture, and Translation) 분과에서는 2009년, “본문간 비평으로서의 번역”(Translation as intertextuality), 2008년 “번역학과 성서학의 비평이론 사이의 교차점”(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translation studies and critical theory in Biblical Studies)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화를 겪게 되는데, 본문의 역사를 밝히는 역사비평은 교회의 교리 중심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비평적’ 본문의 의미 재생을 통한 객관적 해석의 주창이었다. 이로써 역사비평은 이전의 자의적, 문자적 해석에 쐐기를 박고 성서 본문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기독교 교리만이 아니라 성서 해석의 정황 속에 독자, 교회의 삶의 자리마저 배제시켜 성서는 경전이 아닌 분석대상인 문헌으로 취급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이에 경전으로서 성서를 하나의 전체적인 유기체로서 연구하려는 문학비평이 대두되었다. 크로산(D. Crossan)이나 휘시배인(M. Fishbane) 등은 이러한 문학비평의 대두를 단순히 기존의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혁신으로 평가하면서 성서해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한다.<sup>10)</sup> 문학비평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성서의 최종 본문(final text)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본문의 구조와 문학적 기교들을 살펴본다는 점이다. 문학비평은 크게 성서의 구조와 문학적 기교 두 가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히브리 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히브리 시의 알파벳시, 수미쌍관법, 교차대구법, 후렴구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문학적 기교로는 평행구 사용(parallelism), 반복의 기법, 그리고 풍부한 이미지(은유, 환유, 제유)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문학비평이 성서 원문의 문학적 양식과 기교를 통해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그 해석의 결과가 가치중립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문학비평 자체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자가 그가 처한 문화적, 신학적, 역사적 상황의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본문 안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다른 본문의 구조가 발견되기도 한다. 본문의 본래적 의미보다는 그 본문이 읽혀지는 상황적 의미와 해석의 윤리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상황적 성서해석은 성서비평이 분석적 과제를 넘어서 현대 독자 공동체의 현실에 따라 성서 본문의 의미가 다르게 읽힐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성서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역자의 신학적, 문화적 입장에 따라 본문의 이해와 그에 따른 번역이 달라진다.

### 3. 문학비평적 성서해석과 성서번역

10) D. Crossan, “Ruth amid the Alien Corn: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Biblical Criticism”, R. Polzin and E. Rothman, eds., *The Biblical Mosa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199; M. Fishbane, “Recent Work on Biblical Narrative”, *Prooftexts* 1 (1984), 99.

본문간 등가번역은 원천어 본문의 문법과 언어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원천어 본문의 문학 양식이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그 의미를 전달하거나,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수용언어의 문화에서 통용되는 문학 양식을 빌려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주된 목표는 본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번역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원문의 감화 및 감흥, 그리고 연상적 의미가 최대한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한글번역이 히브리시의 문학적 양식을 얼마나 잘 보존하면서 의미를 번역하고 있는가를 애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3.1. 원천어 본문의 양식을 살린 번역

애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형식이 알파벳시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애가의 특징으로는 히브리 시의 일반적인 특징인 평행법의 사용, 도시의 인화, 풍부한 은유의 사용, 다양한 화자의 등장과 변화를 손꼽을 수 있다. 한글 성서번역들이 애가의 이러한 문학적 특징들을 얼마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본다.

#### 3.1.1. 알파벳 시의 구조적 특징을 살린 번역

애가의 다섯 편의 시는 첫 단어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하는 알파벳(acrostic) 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1)</sup> 1장과 2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유형에 속한다. 거기서 연은 세 소절을 갖고 각 연의 첫 소절 만이 알파벳에 상응함으로써 1연은 알렘으로 시작하고 2연은 베트로 시작하는 등 히브리 알파벳의 22문자 순서로 짝 이어진다. 4장은 동일한 형태에 속하지만 이 장에서 각 연은 오직 두 소절만을 가진다. 3장은 더 정교하다. 각 연은 세 소절을 가지며 각 소절은 동일한 자음으로 시작한다. 즉 알렘으로 세 소절이 시작되고, 다음으로 베트로 세 소절이 시작되며 그런 식으로 짝 이어진다. 5장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되지는 않지만 정확히 22소절을 갖고 있어 알파벳에 상응한다. 22소절을 갖는 다른 성서의 시편들이 존재하고-시 33, 38, 103편- 이 모든 경우에 소절의 수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sup>12)</sup>

특정 언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알파벳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수용언어의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면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심지어 거의 유사한 알파벳 체계를 사용하는 아랍어로 번역된 탈굼역에서조차 애가의 알파벳 패턴은 깨진 채 번역되고 있다. 탈굼의 번역자는 알파벳

11) 구약의 알파벳시(부분적인 알파벳 시 포함)는 나 1:2-8; 시 9-10, 25, 34, 37, 111, 112, 119, 145; 잠 31:10-31 등이 있다.

12) Delbert R. Hillers, *Lamentation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Garden City: Doubleday & Co, 1972), xxiv-xxv.

시라는 구조적 특징보다 내용 동등성의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언어가 가지는 알파벳의 구조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시를 수용언어의 알파벳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일부 현대번역본들은 애가가 알파벳시임을 드러내주기 위한 차선책을 간구하기도 한다. 가령 JPS는 각 절의 서두에 히브리 알파벳을 표기하는 것으로 알파벳시의 뉘앙스를 살리려고 노력하였고, NJB도 유사하게 각 절에 히브리 알파벳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여 애가가 알파벳시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별다른 노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알파벳시의 문법적 번역이 어렵다면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히브리 시인이 알파벳시라는 양식을 취하면서 얻어내고자 했던 문학적 효과, 혹은 의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 의도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 성서에서 전체가 알파벳 시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책은 애가가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애가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알파벳시의 형태를 다섯 편의 시에 적용했다고 생각된다.

히브리 성서의 시편이나 노래가 알파벳 시의 형태를 취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하였는데 폴 하우스(Paul House)는 이를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한다.<sup>13)</sup> 첫째, 알파벳시가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자들이 그런 형식을 사용했다는 견해, 둘째, 알파벳에 따른 두운법은 특별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암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 셋째, 알파벳 노래가 가지는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문학적 예술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 끝으로 저자가 시의 완성도를 통해 감정을 절제된 형태로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알파벳시 형태를 취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상의 각 견해들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만일 알파벳시가 암기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거나 마술적 힘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에 쓰인 것이라면 시편에 더 많은 알파벳시가 없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알파벳 시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으로만 설명하기엔 이 시의 예전적 의미를 다소 간과한 관찰이다.

애가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가 예배라는 점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예배는 도성의 멸망이 있었던 때에 이미 있었고 그 이후 지속되었음을 성서가 보여준다.<sup>14)</sup> 에탄 레빈은 애가가 먼저 절기 동안에 개인

13) 두안 가렛, 폴 R. 하우스, 『아가, 예레미야 애가』, 채천석 역, WBC 23B (서울: 솔로몬, 2010), 454-455.

14) 예레미야 41:4-8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으며, 몸에 상처를 내며, 바벨론의 통치자인 게달리아가 죽은 직후에 제물을 가지고 모여든 애곡자들을 설명한다. 스가랴 7:3-5와 8:19에 따르면 애곡과 금식은 다섯 번째 달과 일곱 번째 달에 있었다. 성서는 성전이 멸망한 때로 아브월 일곱 번째 날(왕하 25:8-9)과 열 번째 날(렘 52:12)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성전이 아브월 아홉 번째 날에

적으로만 읽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회당예배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회당이 모든 치장을 벗고, 거룩한 궤의 휘장을 벗기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초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을 끄으며, 회중들은 마루나 결상에 맨발로 앉아서 작고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의 음악적 양식은 전통적인 유대 레퍼토리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시리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마론과 교도와 제임스파)와 애굽의 곱트 교도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5)</sup> 이처럼 애가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본다면, 애가가 공통되게 알파벳시의 형태를 빌리거나 모방한 이유는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절제되지 않은 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문학적 틀을 사용하여 절제된 감정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sup>16)</sup> 즉 애가는 고난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낮추리하는 탄식을 넘어 공동체의 고난 경험을 예배의 형태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간청을 통해 함께 나누며 그 아픔을 알파벳시의 문학적 양식을 빌려 승화시킨 예전의 한 예이다. 알파벳에 맞춰 시를 쓰는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감정의 폭은 조금씩 정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애가가 도시의 멸망과 그 거주민들의 고통을 애도한 알파벳시라면 내용 동등성의 원칙에 의해 알파벳시 양식은 다를지라도 수용언어에서 도시의 멸망을 노래한 애도시 혹은 장송곡의 형식을 빌려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를 살리는 번역을 택할 수 있다. 장송곡이나 애도시의 경우 죽음의 슬픔을 예전이나 시의 형식에 맞춰 정제된 표현을 하는 문학 양식이기 때문에 애가의 저자가 알파벳시의 형식을 빌려 슬픔을 노래한 의도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더욱이 애가가 키나의 애도 운율을 이루고 있으므로 애도의 시 형태에 따른 애가의 번역은 적절한 선택이다. 이러한 애가 중국의 번역에서 반영되었다.

기원전 3세기 초, 춘추전국시대 정치인이자 시인이었던 굴원(Qu Yuan; 기원전 340-278년경)<sup>17)</sup>이 나라로부터 외면당하고 유배당하면서 지은 애도시에 각 절

함락되었고, 바르 코크바 요새인 바타르가 135년 동일한 날에 무너졌던 전승 때문에 유대 전통은 아브월 아홉 번째 날을 선택하여 대중적인 통회의 날을 지키고 있었다. Hillers, *Lamentations*, 1972, xli.

15) 폴 하우스, 『예레미야애가』, 451에서 재인용 (Aramaic Version, 13).

16) Kathleen M. O'Connor, *Lamentations & The Tears of the World* (New York: Orbis Books, 2002), 11-14.

17) 굴원은 양쯔 강(揚子江) 중부 유역의 큰 나라였던 초나라의 왕족으로 태어났다. 그의 친척이었던 회왕(懷王)의 신임을 받아 20대에 벌써 좌도(左徒: 侍從)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으나 중상모략으로 면직당하고 유배당했다. 유배시 그는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장편 서정시 <이소 離騷>를 써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회왕이 죽은 뒤 큰아들인 경양왕(頃襄王)이 즉위하고 막내인 자란(子蘭)이 영윤(令尹: 宰相)이 되었다. 굴원은 회왕을 객사하게 한 자란을 백성들과 함께 비난하다가 또다시 모함을 받아 양쯔 강 이남의 소택지(沼澤地)로 추방되었는데 그때 <어부사 漁

의 마지막에 탄식소리를 나타내는 혜(兮)를 첨가하였다. 이 단어는 독자들이 시의 절을 구분하는 표식이 되기도 하며, 이 시가 애도시임을 나타내는 기능도 한다. 1854년에 발간된 문리대표본(The Delagates Version)<sup>18)</sup>에서 이러한 중국 전통의 애도시 형식을 애가 번역에 도입하였고, Li Rongfang(李榮芳; 1887-1965)<sup>19)</sup>도 이러한 중국의 애도시 형식을 빌려 애가를 번역하였다. 리의 애가 1:1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緬懷黎庶之城兮 (면회려서지성혜), 於今何竟獨居! (어금하경독거)  
 列邦稱雄之國兮 (열방칭웅지국혜), 茲已猶之孀嫠! (자이유지상리)  
 諸省推尊之后兮 (제성추존지후혜), 何竟流而爲女廝! (하경류이위여시)

리는 각 절을 번역하면서 두 번째 소절보다 첫 소절에 더 많은 문자를 넣어 그 길이를 길고 짧은 형태로 만들고 절의 중간에 탄식소리인 혜(兮)를 배열함으로써 절을 읽을 때 마치 탄식소리와 울음을 함께 듣는 효과를 나타내었다.<sup>21)</sup> 첫 소절을 길게, 둘째 소절을 짧게 번역한 점은 히브리 애도시의 키나 운율의 뉘앙스를 살린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한글번역에서도 알파벳시라는 양식을 통해 절제된 감정을 예전적으로 표현했던 애가 저자의 문학적 의도를 살린 번역을 위해 한국의 문학 양식 중 한시 중의 사행시, 혹은 판소리나 굿의 풀이 등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3.1.2. 애도를 나타내는 감탄사, ‘에이카’(אֵיכָה)의 번역

애가의 또 다른 양식적 특성은 애가의 히브리어 책이름이기도 한 ‘에이카’의 언급이다. 애가 1, 2, 4장은 그 첫마디를 탄식을 나타내는 히브리 감탄사 ‘에이카’로 시작된다. 이것이 책이름이기도 하다. 히브리 정경 순서에 따르면 애가는 타나크에서 다섯 개의 절기서를 묶은 메길로트 중의 하나이다. 즉 히브리 성서 전통

父辭>를 썼다.

18) 중국어 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10), 176-199를 참조하라.  
 19) 중국의 옌진대학교(Yenching University) 교수로 1921년부터 봉직하면서 구약을 가르쳤으며 종교대학원 학장을 역임하기도 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이다.  
 20) 부데(Budde)는 애가에서 한 소절에서 세 단어를 두 단어가 뒤따르는 3:2 운율을 특징적 요소로 발견하였다. 그는 이 운율 형식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7장에서도 발견하고 이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데 사용된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21) Chun Li, “Two Chinese Attempts to Translate Lamentation 1: A Reflection on the Role of Intertextuality in Translation”, Presented paper at The Society of Asian Biblical Studies 2010 Conferenc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June 14, 2010.

에서 애가는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며 이를 애도하는 아빱월의 제 9일에 드리는 회당 예배와 연관되어 ‘위로’와 ‘애도’의 성격이 강조된다. 애가는 절기 때마다 그 선조들의 슬픔과 고난의 경험이 예전을 통해 다시 들려지고(retelling) 현재화 되어 나의 경험으로 재해석됨으로써 ‘나의 노래, 나의 슬픔’으로 변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애가는 유대 공동체에게 과거와 현재의 고난 경험을 연결해주며, 고난의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는 ‘위로의 책’의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애도시로서의 애가의 문학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에이카’의 생생한 번역이 중요하다.

한글 번역이 1, 2, 4장의 서두에 나오는 “에이카”의 뉘앙스를 얼마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1 슬흐다 [이 성이여] … 엇지 / 2:1 슬흐다/ 4:1 슬흐다(『성경전서』 [1911년])

1:1 슬프다 [이 성이여] … 이제는 어찌/ 2:1 슬프다 … 어찌/ 4:1 슬프다 어찌(『개역개정』)

1:1 아, 슬프다. / 2:1 아, 슬프다/ 4:1 아, 슬프다 어찌하여(『새번역』)

1:1 아, [그렇듯 봄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지다니]/ 2:1 아, / 4:1 아, (『공동개정』)

『성경전서』의 경우, 1:1에서 에이카를 “슬흐다”로 번역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인 ‘도시’(하이르)를 호격으로 번역하여 탄식의 생생함을 살렸다. 고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엇지”란 도전을 뒤 소절에 가서 첨부하고 있다. 2장과 4장에서는 에이카에 대한 번역을 1장과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슬흐다”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의 경우는 『성경전서』와 마찬가지로 1:1에 에이카의 번역인 “슬프다” 뒤에 도시를 호격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세 절에 모두 “어찌”를 첨부하여 탄식의 도전적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고 있다. 단 1, 2절은 어찌가 이어지는 문장 가운데 나오고, 4장은 “슬프다” 동사 바로 뒤에 나온다. 『새번역』은 에이카를 “슬프다”로 번역하면서 앞에 한글의 감탄사 “아”를 첨부함으로써 탄식의 청각적 효과를 높여주고 있으며, 4장에서는 “어찌하여”를 부가적으로 집어넣음으로써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 탄식과 함께 저항의 뉘앙스를 살려주고 있다. 『공동개정』은 에이카를 단순히 한글의 감탄소리 “아”로 번역하고 있어 탄식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주지 못했다.

비록 단어 하나에 대한 번역일지라도 히브리 감탄사 에이카는 세 장의 서두에서 각 장이 애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표현해주는 문학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그 뉘앙스를 잘 살려 번역하는 것은 중요하다. 애가에서 에이카로 시작되는 탄식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수궁하는 소극적 탄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자신



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 시온의 울부짖음이 섞여 있으므로 『새번역』이 4:1에서 제시한 것처럼 “어찌” 혹은 “어찌하여”를 함께 부연하여 번역하는 것도 좋은 번역으로 보인다. 『성경전서』와 『개역개정』이 1:1 하반절에 “어찌”를 첨가하여 번역하고 있지만 에이카를 세 장의 서두에 공통된 표현으로 일관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언급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글 번역의 비교 결과, 에이카에 대한 문학적 기능을 살린 번역은 『새번역』과 『공동번역』이 취한 한글의 감탄사, “아”,와 함께 슬프다는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그리고 도전의 뉘앙스를 담은 “어찌하여”를 묶어서 “아, 슬프다 어찌하여”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1, 2, 4장의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본다.

1:1a 아, 슬프다 어찌하여 이 도시가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이리도 적막히 앉았는가

2:1a 아, 슬프다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4:1a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변하고 순금이 변질하여

### 3.2. 수용언어의 문학 양식을 살린 번역

본문간 등가번역의 또 다른 방식은 수용언어의 문학적 양식을 살려 현대 독자로 하여금 원천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글 번역에서 애가를 애도의 양식을 살린 번역 사례는 없었지만 애가를 한국의 전통가락에 맞춰 4.4조로 번역한 예가 있었다.<sup>22)</sup> 번역이 원천어 번역이 아니라 다른 말 성서에서 증역한 것으로 시편 자체의 숨결과 가락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낱말의 바른 번역에 치중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반성에도 불구하고,<sup>23)</sup> 시편의 내용을 살리면서 수용언어의 문화적 정서를 살리려는 노력이었다. ‘예배 시편’은 (1)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2) 본문의 정신과 뉘앙스를 전달하며, (3) 관용구의 틀 안에서 문학적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며, (4) 히브리 원문의 효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살리는 것 등의 네 가지 번역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24)</sup> 유일하게 인용된 애가 본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한결같은 주님 사랑 (예레미야애가 3:22-26)<sup>25)</sup>

22) 박근원 엮음, 『새로운 예배 시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 Ibid., 11.

24) Ibid., 12.

25) Ibid., 363.

♪ 한결같은 주의사랑 흘러흘러 다함없고  
 변함없는 주의공홀 가도가도 끝이없네  
 주의사랑 주의공홀 아침마다 새로우니  
 신실하신 주의모습 크시기가 한량없네

하나님은 나의사랑 나의전부 나의구원  
 그러기에 내가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네

주를찾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복주시네  
 주를쫓는 사람마다 한량없이 복주시네  
 사람들아 기다려라 주님구원 하시기를  
 인내하고 기다려라 주님구원 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사랑 나의전부 나의구원  
 그러기에 내가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네 ♪

예배시편은 히브리 시가 예배에서 낭독되었으리라는 예전적인 기능을 번역에 살린다는 점에서 시편을 수용언어의 문화와 접목시켜 예배를 위한 전통가락으로 번역하는 시도는 높이 살만하다. 시편의 토착적 번역이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시의 양식(탄원시, 찬양시, 제왕시 등)을 살려내지는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애가의 탄원부분을 애도시의 형식이 나 탄식의 단조로 번역하는 연구도 기대해본다.

### 3.3. 히브리 시의 기교를 살린 번역

애가는 다채로운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도시의 의인화와 은유 언어의 해석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이다.

#### 3.3.1. 도시의 의인화

애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기교가 의인화이다. 가장 대표적인 의인화의 예는 예루살렘 도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으로 의인화된 도시는 “딸 시온”,(1:6; 2:1, 4, 8, 10, 18) “딸 예루살렘”,(2:15) “딸 유다”,(2:2) “처녀 딸 유다”,(1:15) “처녀 딸 시온”,(2:13) “딸 내 백성”(2:11)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도시 자체를 딸로 지칭하는 “딸 시온”이란 명칭, 히브리어 ‘바트 쯔온’,은 오랫동안 “시온의 딸”로 번역되어 왔지만 스타인스프링(W. F. Steinspring)이 바트 쯔온의 문법 형태가 동격 소유격(appositional genitive)의 관

계를 취하며, 이를 “딸 시온”으로 번역할 것을 주장한 이후 학계에서는 이를 “딸 시온”으로 번역하는 것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sup>26)</sup>

도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게 된 기원에 대한 논의를 뒤로하고 도시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의인화할 때의 문학적 효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의 멸망을 애도하면서 도시를, 남성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의 강자보다는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의인화함으로써 도시 멸망에 대한 동정과 애도의 감정을 더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애가 전체에서 여성 도시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부, 어머니, 사랑하는 자, 성폭행의 피해자—에 비유되면서 기구한 여성의 삶을 통해서 도시 혹은 백성들의 고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애가의 주요 독자가 남성인 점을 고려할 때 도시와 여성은 모두 남성이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자신이 보호해주고 행복을 보장해주어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남성 청중들에게 땅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울며 애통하는 여인의 모습은 동정을 넘어서 자신들을 자책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감정 고조의 효과를 낸다. 도시의 멸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참한 상황들이 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쓰러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대목들(2:18)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나약한 어린아이의 불행을 통해 책임 있는 존재들의 자괴감을 한층 더 높여 감정 이입을 돕는다.

한글 번역본에는 여성으로 의인화된 도시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히브리 본문	『성경전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바트 짜온 (1:6; 2:10)	녀즈 궂흔 시온	딸 시온	도성시온	수도 시온
바트 예루살라임 (2:13, 15)	녀즈 궂흔 예루살넴	딸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베틀라트 바트 짜온 (2:13)	쳐녀 궂흔 시온	쳐녀딸 시온	도성 시온	수도 시온
바트 암미(4:3)	녀즈 궂흔 내 백성	딸 내 백성	내백성의 도성	내백성의 수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전서』는 일관되게 직유법을 사용하여 용어들을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이를 동격 소유격(*appositional genitive*)의 관계로 보면서 의인화의 수사적 효과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문학적 기교를 무시한 채 도성 혹은 수도로 번역한다.

애가의 저자가 도시를 의인화시켜 표현한 목적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도시의 멸망을 객관적이고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좀 더 개인적이고 나와 밀접하게 관

26) W. F. Steinspring, “N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Appositional Genitive in Hebrew Grammar”, *Encounter* 26 (1965), 133-141.

련된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감정을 이입하도록 돕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가의 도시의 여성 의인화는 직유로 처리하거나(『성경전서』) 의인화의 문학적 기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적 도시 이름으로 표기(『새번역』, 『공동개정』)하는 번역보다는 도시 의인화를 통한 감정이입의 효과를 살리고 히브리 문법의 올바른 형태를 반영하여 “딸 시온” 등으로 번역한 『개역개정』이 가장 적절하다.

### 3.3.2. 은유의 번역

원천어 본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유적인 언어(은유, 환유, 제유)를 번역할 경우 수용언어 독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특정 소재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나 표현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며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가 충돌할 때 번역자는 원천어 본문의 이미지를 수용언어 본문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접목시켜 번역할 수 있어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비유언어의 번역에는 두 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배경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은유의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시된 은유가 수용언어 독자들에게 생소한 은유로 그 뜻을 언뜻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형식 일치 원칙을 강조하면 이를 생소하다 라도 관용구처럼 그대로 은유를 옮겨 표현해주거나, 내용 동등성의 원칙을 살려 원 은유가 의도하는 내용을 담은 수용언어 문화의 은유를 찾아 대치 은유로 제시하거나 은유를 무시하고 그 내용을 풀어 번역할 수도 있다.

애가가 고난을 애도한 시이므로 은유의 사례를 고통을 비유하는 언어들을 선별해서 살펴보았다. 애가 3:13 이하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15절과 19절은 그 고통을 식물들에 비유한다.

הַשְּׂבִיעֵנִי בְמַרְרִים הָרַגְנִי לְעֵנָה: 15

זְכַרְעֲנִי וּמְרִירָהּ לְעֵנָה וְרֹאשׁ: 19

한글 성서 번역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5 주 쓴 것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쭉으로 나를 취케 하시며  
19 내 고초와 재난을 생각하소서 꺾과 담즙이로소이다 (『성경전서』)

15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쭉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쭉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개역개정』)

15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쭉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19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쭉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새번역』)

15 쓴 풀만 먹이시고, 소태즙만 마시게 하셨다.

19 쫓기는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합니다. (『공동개정』)

위의 구절에서 고통은 세 가지 용어(מַרְוֹהִים לֵעֲנָה וְרֹאשׁ)로 비유되었다. 마를은 쓴 것(『성경전서』, 『개역개정』), 쓸개즙(『새번역』), 쓴 풀(『공동개정』)로, 라이나는 쭉(『성경전서』, 『개역개정』), 쓴 쭉(『새번역』), 소태즙(『공동개정』)으로, 그리고 로쉬는 담즙(『성경전서』, 『개역개정』), 쓸개즙(『새번역』), 소태(『공동개정』)로 번역되었다.<sup>27)</sup>

고통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 단어들에 상응하는 적절한 한글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 동일한 단어가 성서의 다른 본문에 쓰인 예와 그에 대한 한글번역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마를의 경우는 복수형으로 출애굽기 12:8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유월절 명령에 언급되는데 한글번역 모두 마를의 복수형인 메라림을 “쓴 나물”로 번역하였다. 다음 단어인 라이나와 로쉬는 이스라엘이 부정을 비판하는 아모스 6:12에 함께 등장하는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정의를 로쉬와 라이나로 바꾸어버렸다고 꾸짖는다. 한글번역은 이 본문의 로쉬를 각각 쓸개(『개역개정』), 독약(『새번역』, 『공동개정』)으로, 그리고 라이나를 쓴 쭉(『개역개정』), 쓰디쓴 소태(『새번역』), 소태(『공동개정』)로 번역하였다. 로쉬는 또한 신명기 32:33에 언급되는데 한글번역은 이를 모두 (뱀의) 독약으로 번역한다. 비유 언어는 두 언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문자적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이다. 두 개념의 유사성은 인지하는 자의 공통된 체험에 근거를 둔다. 그런데 고통을 표현하는 한글 단어들에 쭉은 인간의 쓴 고통을 표현하는 데 쓰이지 않는 생소한 번역이다. 고통을 표현하는 세 히브리 단어에 대한 적절한 한글 번역을 찾기 위해 히브리 시의 특징인 평행법과<sup>28)</sup> 다른 본문에서의 동일한 단어의 번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애가 3:15는 히브리 시의 특징인 동의적 평행구를 이루고 있다. 번역의 초점이

27) 히브리 성서에서 고통을 식물 “쭉” “쭉과 독한 물”이란 용어를 통해 표현한 예가 예레미야 9:15와 23:15에도 발견된다. 고통을 당하는 표현으로 “잔”이란 은유를 사용하기도 한다(애 4:21; 5:16; 렘 13:18; 25:15, 17, 28; 49:12).

28) 히브리시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으로서의 평행법과 성경번역에 있어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19 (2006.10.), 7-27을 참조하라.

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남겨둔 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메라림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라아나로 나를 취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2:8의 맥락에서 한글 성경은 메라림을 공통적으로 쓴 나물로 번역하였다. 해당 본문이 유월절의 관습과 연관이 있으므로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문자적인 의미이고 현대 유월절 관례에서 쓴 나물을 먹으므로 번역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메라림은 “쓴 나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의적 평행구에 언급된 라아나는 메라림과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동일한 동의적 평행구의 관계를 띠고 있으므로 쓴 맛을 표현한 어떤 감정표현의 도구로 추측할 수 있다. 19절의 번역은 이 단어의 번역에 대한 보다 분명한 문맥을 제공한다.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논의의 초점인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남겨놓은 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라아나와 로쉬입니다.

여기서 라아나는 고초와, 재난은 로쉬와 동일시되었다. 라아나는 고초를 표현하되 인간의 체험 중 쓴 미각을 살린 비유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15절의 동의적 평행구의 뉘앙스를 살린 번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난과 동일시된 로쉬는 신명기 32:33에 뱀과 연결되어 언급되면서 한글 번역에서 공통되게 ‘독’으로 번역된 점을 볼 때, “독”을 적절한 번역말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5절의 메라림은 출애굽기 본문을 고려하여 “쓴 나물”로, 19절의 로쉬는 신명기 본문을 고려하여 “독”으로, 그리고 라아나는 “쓰다”는 뉘앙스를 담은 우리나라의 식물로 상응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성경전서』가 쓴 식물의 비유 언어로 왜 “썩”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역개정』은 아마도 『성경전서』의 “썩”을 그대로 번역에 반영한 듯하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썩은 고초를 표현하는 쓴 맛을 상징하는 비유 언어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인에게 쓴 맛을 비유하는 언어는 ‘소태’가 더 가까운 식물이다. 따라서 라아나는 썩(『개역개정』) 혹은 쓴 썩(『새번역』)보다는 소태즙(『공동개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소태보다 소태즙을 선호하는 이유는 15절에서 동사(‘취하다’)의 목적어가 액체인 뉘앙스를 더 잘 살려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15절과 19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5. 쓴 나물로 나를 배불리시고, 소태즙으로 나를 취하게 하시니.  
 19.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곧 쓰디쓴 소태와 독약입니다.

### 3.3.3. 단어의 함축적 의미를 살린 번역: 레헴

원천어 본문의 시어 선택에 있어서 단순한 문법적, 어휘적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의 경우 그 함축된 의미를 살린 단어 선택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함축적 의미를 담은 단어의 효과적인 번역의 한 예를 “레헴”의 번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애가 3:22-24는 구원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자비(헤세드)와 긍휼(레헴)을 언급한다. 22절의 한글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חַסְדֵי יְהוָה, כִּי לֹא־חָמְנוּ כִּי לֹא־כָלוּ רַחֲמָיו: <sup>22</sup>

22 여호와와 자비함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였스니 이는 그 긍휼이 무궁함이로다(『성경전서』)

22 여호와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니이다(『개역개정』)

22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새번역』)

22 주 야훼의 사랑 다함 없고 그 자비 가실 줄 몰라라.(『공동개정』)

이상과 같이 히브리어 헤세드와 레헴을 『성경전서』는 자비와 긍휼로, 『개역개정』은 인자와 긍휼, 『새번역』은 사랑과 긍휼, 그리고 『공동개정』은 사랑과 자비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하밈과 어원을 같이하는 단어로 자궁의 떨림을 통한 연민과 사랑의 정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sup>29)</sup> 하나의 단어에 이러한 함축적인 뉘앙스가 담겨 표현된 경우 수용언어에서 그 뉘앙스를 담은 등가의 단어를 찾아 번역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사가랴의 예언에 히브리어 레헴의 함축적 의미를 살린 탁월한 단어 번역의 예가 발견된다.

누가복음 1:67-79는 사가랴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7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긍휼(ἔλεος)을 베푸시어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였다고 말한다. 77-7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개역개정』)고 선포한다. 한글번역에서는 72절과 78절이 유사하게 번역되어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다.

29)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유연희 역 (서울: 태초, 1996).

<sup>72</sup> ποιῆσαι ἔλεος μετὰ τῶν πατέρων ἡμῶν καὶ μνησθῆναι διαθήκης ἀγίας αὐτοῦ,

<sup>78</sup> διὰ σπλάγγνα ἐλέους θεοῦ ἡμῶν, ἐν οἷς ἐπισκέψεται ἡμᾶς ἀνατολὴ ἕξι ὕψους,

즉 72절은 긍휼(ἔλεος)만을 언급하지만 78절은 내장을 통한 긍휼(διὰ σπλάγγνα ἐλέους)이란 추가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서 스플랑크논은 문자적으로 내부 장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히브리어 레헴이 긍휼의 속성을 내부 장기 중 하나인 자궁과 연관된 함축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 점을 누가복음 1:78은 그 뉘앙스를 살려 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풀어서 ‘내장을 통한(διὰ σπλάγγνα) 긍휼(ἐλέους)’로 묘사하고 있다. 원천어에서 그 안에 은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번역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은유적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 단어의 복합으로 그 함축적 의미를 살린 좋은 예이다.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의 긍휼히 여김을 표현하는 동사(스플랑크니조마이)로 등장한다(마 9:36; 14:14 18:27 막 1:41 6:34 8:2 눅 7:13; 10:33; 15:20).

그렇다면 “내부의 떨림을 동반한 연민의 정, 사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레헴의 뉘앙스를 담아 번역할 한글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레헴은 『성경전서』과 『개역개정』, 『새번역』에서 “긍휼”로 번역되었다. 『공동개정』에서는 “자비”로 번역되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긍휼(矜恤)은 ‘불쌍히 여겨 도와줌’, 그리고 자비(慈悲)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을 뜻한다. 두 단어 모두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레헴이 가지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연민의 감정이란 뉘앙스를 선명하게 살리는 등가어는 아니다. 그럼에도 두 단어 중에 히브리어 레헴의 뉘앙스를 더 잘 반영한 단어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표현하는 자(慈)와 슬퍼하고 애통하는 감정을 표현한 비(悲)로 결합된 자비가 더 가깝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자비’란 불교에서 부처의 속성을 묘사하는 데 자주 쓰이는 용어이므로 『개역개정』의 경우는 자비란 말을 번역에서 제외시켰다.

#### 4. 해석과 번역: 신학적 해석에 따른 상이한 번역(아가 5:21-22)

최근의 번역학은 물론이고 성서해석학에서 번역이나 해석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번역이나 해석이든 다양한 이념



적, 문화적, 신학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30)</sup> 신학적 입장에 따라 본문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는가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경우가 애가 5:21-22이다.

הַשִּׁבְנוּ יְהוָה! אֵלֵינוּ (וְנִשְׁבַּח) חֲדָשׁ יְמֵינוּ כְּקִדְמוֹת: <sup>21</sup>  
כִּי אִם-מָאֵס מְאֹסָתָנוּ קִצְפָּתָ עָלֵינוּ עַד-מָאֵד: <sup>22</sup>

이 두 절의 번역에서 논의의 초점은 22절의 אִם כִּי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이다. 논의의 초점이 되는 키임(אִם כִּי)에 대한 번역은 21절과 22절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번역을 이끌어낸다.

21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요청이지만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진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두 절의 논리적인 연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번역상의 논점이다. 고대 역본 전통에서도 이러한 두 절 사이의 모순을 인지하고 나름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유대 전통에서는 백성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께 호소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어조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21절과 22절을 뒤바꾸어 읽는데<sup>31)</sup> 현대 영어번역 중에 타나크(TNK)가 이 전통을 따른다. 한편 그리스어역과 페쉬타(고대시리아어)는 22절을 키(כִּי)로만 시작한다.

현대번역본들은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번역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다. 먼저 22절의 키임을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한글 성서번역들이 이 경우를 따른다.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도라 오겠스오니 다시 우리 날을 새롭게 하여 넷적꺄게 하소서 22 대개 주 우리를 아조 브리시고 우리의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성경전서』)

21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개역개정』)<sup>32)</sup>

21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30) Lawrence Venuti, ed., *Translation & Minority*, The Translator 4:2 (Oldham: St. Jerome Publishing, 1998).

31) 로버트 데이빗슨, 『예레미야(하), 예레미야 애가』, 장귀복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7), 259.

32) 『개역개정』은 각주로 22절의 또 다른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니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니까.

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22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sup>33)</sup> (『새번역』)

21 야훼여, 주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예  
 선처럼 잘살게 해주십시오. 22 주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서어도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동개정』)

『성경전서』는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옮겨 번역한 반면, 『개역개정』은 본문에  
 서는 ‘키임’을 반영하지 않고 느슨하게 번역하고, 각주에서 ‘키임’을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번역』은 본문에서 ‘키임’을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각주에 ‘키임’을 뺀 채 느슨한 번역을 제시한다. 『공동번역』은 반어  
 적 의문문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키임’을 의문문으로 번역할 경우, 의미상의 난  
 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성서의 다른 본문에서 כִּי 혹은 אִם כִּי이 “또는(or)”이나  
 의문문으로 쓰인 예가 발견되지 않아 문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번역이다.

21-22절을 성서의 다른 본문들을 참고로 의미를 살펴 번역하려는 다양한 시도  
 가 이루어졌다. 가령 אִם כִּי을 창세기 32:27(『개역』은 26절)의 예를 따라, “unless  
 (... 하지 않는 한)”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레 22:6 참조).

וַיֹּאמֶר שְׁלַחֲנִי כִּי עָלָה הַשָּׁחַר וַיֹּאמֶר לֹא אֲשַׁלְּחֶךָ כִּי אִם-בְּרַכְתָּנִי<sup>27</sup>

그가 말하기를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하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하  
 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게하지 아니하겠나  
 이다.

영어번역 중에서 NIV와 NRSV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알브렉슨(Albrektson)과 베스터만(Westermann)은 ‘키 임’(אִם כִּי)을 unless로  
 번역할 것을 지지한다.<sup>34)</sup>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키 임’이 그 앞 소절에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가 포함되었거나 부정적 의미를 암시하는 절 뒤에서만 unless  
 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22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고디스  
 (Robert Gordis)는 22절의 ‘키임’을 unless로 번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

33)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고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십니다.’

34) Albrektson, *Studies in the Text and Theology of the Book of Lamentations with a Critical Edition of the Peshitta Text*, 205-7 (Lund: CWK Gleerup, 1963.); Claus Westermann, *Lamentations: Issues and Interpretation*, C. Muenchow,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4), 217-219.

는 문법적인 어려움보다는 이러한 번역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부의 가능성을 내포함으로써 신학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sup>35)</sup>

다음으로 힐러스는 ‘키 입’을 역전, 즉 “but(그러나, 오히려)”으로 번역한다.<sup>36)</sup> 이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 기도했지만(21절) 현재에 경험하는 것은 거부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진노(22절)라는 진술이 되므로, 이 대안에 따르면 21절과 22절 사이에 의미의 모순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번역은 고대 역본 중에서 라틴역(vulgate)의 지지를 받는다. 이 번역에 따르면 22절은 현실을 그대로 다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이에 대해 결의할 준비도 되어 있지만 그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로 풀이된다.<sup>37)</sup>

끝으로 고디스는 이를 “even if, though(비록 ...할지라도)”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 실례로 예레미야 51:14, 이사야 10:22, 아모스 5:22, 그리고 애가 3:32를 제시한다.<sup>38)</sup> 이상의 많은 번역의 제안들 중에 명쾌한 해답은 없어 보이지만 힐러스와 고디스가 제안한 번역이 문법상 무리도 없고, 다른 성서 본문들의 지지를 받으며, 신학적으로도 무난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권의 책의 마지막을 ‘비록 ...할지라도’의 조건절로 끝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애가의 마지막 두 절의 번역은 단순한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입장과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번역과 해석의 입장 중에서 고디스와 힐러스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종결절의 기능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힐러스의 번역을 따른다. 애가는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호소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진노가 컸음을 상기시키면서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린 현실을 미화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애가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히, 주께서 우리를 버렸었노라는 현실 고발을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발적인 결론이 우리의 전통신학에 도전이 된다고 하여 번역 과정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의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신학적 가치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이다.<sup>39)</sup> 이런 점에서 한글 번역들 중에서 『성경전서』가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으로 보인다.

35) Robert Gordis, “The Conclusion of the Book of Lamentation (5:22)”, *JBL* 93 (1974), 290.

36) Hillers, *Lamentations*, 160-161.

37) *Ibid.*, 100-101.

38) Gordis, “The Conclusion of the Book of Lamentations (5:22)”, 293.

39) Iain Provan, *Lamentation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134.

## 5. 끝맺는 말

지금까지 문학비평을 통한 성서 연구가 성서의 문학적 구조와 기능을 밝혀냄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이로써 그 본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번역을 도출해내는 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예레미야애가의 한글 번역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문학비평은 예레미야애가의 문학적 특성이 알파벳시, 평행구의 사용, 키나 운율의 사용, 도시의 의인화, 풍부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임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뉘앙스를 살린 번역을 하는 데 좋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예가 이 글에서 소개되었는데 먼저 애가는 성서에서 전체가 알파벳시로 구성된 유일한 사례인데 알파벳시라는 히브리 시의 구조적 특징은 수용언어의 어떤 번역에서도 반영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다. 각 언어가 가지는 알파벳의 차이는 알파벳시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노력일지라도 애도시 양식을 취하고 있는 내용을 살려 양식 일치 번역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수용언어의 애도시의 양식을 빌려 번역한 예가 중국어 번역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애가 전체가 알파벳시로 쓰여진 이유가 격한 감정을 예배라는 예전 속에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때, 한국 문학전통에서 사행시나 관소리 등의 형식을 빌려 애가를 번역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애가 1, 2, 4장의 서두에 언급되는 히브리 감탄사 에이카를 탄원과 저항의 뉘앙스를 살려, “아, 슬프다. 어찌하여”로 번역함으로써 애도의 의미를 살릴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애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를 여성으로 의인화시킨 문학적 기교는 대부분의 번역에 반영되어 있으며 두 문화 사이의 차이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은유의 경우 관용어처럼 그대로 원천어 본문의 용어를 살려 번역하는 예가 있었다. 또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단어의 경우, 함축적 의미를 가진 원천어 단어(예, 레헴)에 상응하는 수용언어의 단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단어의 조합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음을 레헴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눅 1:78)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한글로는 ‘자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번역이 단순히 문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음을 애가의 마지막 절의 도발적인 끝맺음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대 성서번역들이 애가의 문학적 특징과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기보다 문자적 내용의 전달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애가가 알파벳시의 틀을 활용하고 도시의 의인화, 도발적인 오픈 엔딩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관조적이 아니라 감정 몰입을 함으로써 그 안의 분노와 애절함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앞으로 한글성서 번역이 언어적 차원의 등가번역을 넘어서 현대 성서비평적 해석을 토대로 문학적 특징과 뉘앙스를 좀 더 살려 본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본문간 등가의 번역들이 소개되기를 기대해본다.

(투고 일자: 2010. 9. 2, 심사 일자: 2010. 9. 17, 게재 확정 일자: 2010. 9. 17)

<주요어>(Keywords)

본문간 등가 번역, 문학비평과 성서번역, 애가, 성서번역.  
inter-textual equivalent translation, literary criticism and translation,  
lamentations, bible translation.

<참고문헌>(References)

- 가렛, 두안 & 폴 R. 하우스, 『아가, 예레미야 애가』, 채천석 역, WBC 23B, 서울: 솔로몬, 2010.
-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성경원문연구』 19 (2006.10.), 7-27.
- 데이빗슨, 로버트, 『예레미야(하), 예레미야 애가』, 장귀복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박근원 엮음, 『새로운 예배 시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알루 모졸라,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14 (2004. 4.), 128-139.
-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4.), 52-73.
- 트리블, 필리스,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유연희 역, 서울: 태초, 1996.
- 티모시 윌트,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그 몇 경우”, 『성경원문연구』 15 (2004. 11.), 117-153.
- Albreckson, *Studies in the Text and Theology of the Book of Lamentations with a Critical Edition of the Peshitta Text*, Lund: CWK Gleerup, 1963.
- Bell, Roger T.,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New York: Longman, 1991.
- Crossan, D., “Ruth amid the Alien Corn: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Biblical Criticism”, R. Polzin and E. Rothman, eds., *The Biblical Mosaic: Changing Perspectiv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 Gordis, Robert, “The Conclusion of the Book of Lamentation(5:22)”, *JBL* 93 (1974), 289-293.
- Hillers, Delbert R., *Lamentation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Garden City: Doubleday & Co, 1972.
- Li, Chun, “Two Chinese Attempts to Translate Lamentation 1: A Reflection on the Role of Intertextuality in Translation”, Presented paper at The Society of Asian Biblical Studies 2010 Conferenc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June 14, 2010.
- Nida, E. and Charles Tab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 O'Connor, Kathleen M., *Lamentations & The Tears of the World*, Maryknoll:

Orbis Books, 2002.

Provan, Iain, *Lamentatio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Steinspring, W. F., “N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Appositional Genitive in Hebrew Grammar”, *Encounter* 26 (1965), 133-141.

Venuti, Lawrence, ed., *Translation & Minority, The Translator*, Oldham: St. Jerome Publishing, 1998

Westermann, C., *Lamentations: Issues and Interpretation*, C. Muenchow,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4.

<abstract>

## **Literary Criticism and the Bible Translation: Lamentations as an Example**

Prof. Yeong-Mee Lee  
(Hansh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necessity of an literary functional or inter-textual equivalent translation of biblical texts by examining Korean translations of the book of Lamentation. The overall study shows that literary criticism contributes to transform the fuller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itself into the translated text, as the criticism aims to delv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final text as a whole.

Literary criticism that concerns the structure of the unit and rhetorical devices finds the structural feature of the book of Lamentations as Acrostic poem and lament. No Korean translation reflects the feature of acrostic poem nor highlight the nuance of lament in its translation. This study thus suggests to adopt the four syllable metrical rhythm of Korean traditional poem or pan-so-ri to refresh the fact that Lamentations might have been used in the worship setting. The study also suggest to show the representative rhetorical devices of the book of Lamentations which include personification of the city, Jerusalem, and the abundant use of figurative languages. Among Korean translations,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revives the meaning and intention of the personification. Through the literary device, the poet wants to empathize the agony of the destruction of the city.

In addition, the study on the translation of 5:21-22 finds that different hermeneutical position yields different translation, beyond the issue of grammar. Also it realizes that the literary context and the use of the same words in other biblical texts help to translate figurative languages of which equivalent words are not found in the receptor language.